



백삼위 한인성당

2701 W.237th St. Torrance, CA 90505
 www.103skcc.org 103skccusa@gmail.com

담임신부 626-215-7224
 전교수녀 213-804-9151
 평협회장 310-408-1443
 연령회장 310-749-8942
 사무실 310-326-4350

주일미사	주일전날저녁	오후 7시	평일미사	월,화	미사없음
	아침미사	오전 7시 30분		수	오후 7시 30분
	가족미사	오전 9시 30분		목,금	오전 9시 30분
	교중미사	오전 11시		첫 토요일	오전 9시 30분
고해성사	평일 · 토요일 미사 30분 전				

사무실 업무시간	
월,화,토	휴무
수,목,금	8:30am - 4:30pm
주일	8:30am - 1:30pm

(다해) 대림 제2주일

입당 : 희년주제가 파견 : 95

가슴치기 (1)

화답송 Responsorial Psalm

◎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.

(시편 126, 1-2, 2-3, 4-5, 6)

-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,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.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. ◎
-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. “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.”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. ◎
- 주님,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.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, 환호하며 거두리라. ◎
-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,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. ◎

◎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; we are filled with joy. (Psalms 126:1-2, 2-3, 4-5, 6)

- When the LORD brought back the captives of Zion, we were like men dreaming. Then our mouth was filled with laughter, and our tongue with rejoicing. ◎
- Then they said among the nations, “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.”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; we are glad indeed. ◎
- Restore our fortunes, O LORD, like the torrents in the southern desert.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rejoicing. ◎
- Although they go forth weeping, carrying the seed to be sown, They shall come back rejoicing, carrying their sheaves. ◎

미사가 시작되었다. 사제는 제대 앞에서 있다. 신도들과 복사는 각기 제자리에서 “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,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. 제 탓이요, 제 탓이요, 저의 큰 탓이옵니다. ...” 하고 기도를 올린다. 그리고 “탓”이라는 말이 나올 때면 가슴을 친다. 인간이 제 가슴을 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.

한번 실제로 느껴보자. 하지만 느끼려면 옳게 쳐보아야 한다. 그저 옷 위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는 식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. 주먹을 쥐고 가슴을 제법 쳐야 한다. 예로니모 성인이 사막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돌을 움켜쥐고 떨면서 가슴을 때리는 그림을 본 사람도 흑시 있을 것이다. 분명 타격이지 그저 멋있는 몸짓은 결코 아니다. 우리 내심세계의 대문을 두드려 열어젖히는 동작이다. 이렇게 해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. 본래는 생명과 빛과 힘과 활력에 가득한 세계인 터이다. 그러나 실제로 그 안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. 온갖 의무·애로·결단 등 절실한 요구로 가득하다. 그러면서도 그 안에 별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. “우리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도 죽음에 둘러싸여 있다”고는 하나 별로 실감이 안 난다.

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른다. “깨어 일어나라. 네 사정을 살피라. 정신차려라. 마음을 돌려라. 참회하라”고. 가슴을 치는 동작은 바로 이런 부르심을 대신해 준다. 가슴을 뚫고 들어가 그 안의 세계를 경각하여 깨워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여 하느님을 향하게 한다.

